

새 한·불사전의 「동사항목」 구성을 위해서 - 심리동사를 중심으로1)

정 지 영

1. 머리말

한국불어불문학회 주관 아래 1993년 10월에 기획되고 1994년부터 작업 착수에 들어간 새 한·불 사전 편찬 사업은 작업이 그간 잠시 중단을 겪기도 하였지만 1998년 이후 다시 재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어 부분을 전담하여 기술하는 팀과 불어 대역을 전담하는 또 다른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새 한·불 사전의 편찬에 즈음하여 관련된 언어학적 연구가 최근까지 있어 왔는데, 특히 동사 항목의 구성에 관해서는 그간 정지영&홍재성(1997), 박만규&임준서(1996), 박만규(1997)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최근의 이개어 사전편찬학 분야의 연구성과 및 국어학, 불어학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새 한·불 사전의 동사항목 구성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고 이 연구들에서 제안된 바는 기본적으로 새 한·불 사전의 동사항목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그 틀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인력 구성의 측면에서나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전의 한·불 사전보다는 여러 모로 훨씬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사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이란 이런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언어학적 기반에 입각한 사전의 기본틀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한 치밀한 기술이 여전히 숙제로 우리를 기다리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새 한·불 사전편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이상에

1 본 연구는 97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는 구체적인 항목 기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발전적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문맥에서 우리는 한·불사전의 「동사항목」 중에서 소위 말하는 심리동사에 대한 항목 구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형태의 새로운 항목 구성을 고안해 보았다. 심리동사는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그 통사적 특성 때문에 그간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왔던 분야이고 여타 동사들과는 다른 여러 통사적 특이성을 보여주는 동사클래스이다. 또 그런 이유로 한국어에서도 그간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바로 이런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동사들의 항목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하나의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심리동사의 정의

본고에서 말하는 심리동사란 그간 국어학에서 논의되어 온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를 말한다²⁾. 이 심리동사가 지니는 통사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그것들의 외연을 밝히려는 시도는 아주 최근에서야 있었다. 여기서는 한국어의 심리동사 그 자체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므로 우리는 기존의 연구 중에서 김종명(1998)의 심리동사의 정의와 김홍수(1988)의 한국어 심리동사에 대한 정의를 절충적으로 채택하여 심리동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본 연구를 시작한다.

(1) 한국어 심리동사의 정의

: 다음의 구문에 서술어로 나타나는 모든 동사와 형용사를 한국어의 심리동사라 정의한다

a. N0(= 제약인물명사)-(에게)는 N1-이 (N2에게 + E) Adj

2 다음의 연구들은 한국어 심리동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Gerds & Youn(1988), Hong(1991), Hong(1991), Kim, Y. J.(1991), Kim, J. M.(1998, 1999), Kuk(1968), Lee(1973, 1976), Nam(1994), Suh(1991), Whitman(1991), Yang(1972), 김세중(1988, 1990), 유현경(1996), 정인상(1980), etc.

- = b. N0-가 N1(때문에 + -에 대해서) (N2-에게 + E) Adj
- ≡ c. N0-가 N1(때문에 + -에 대해서 + -을) (N2-에게 + E) V(= Adj-어 하다)

또는

- a. N0(= 제약인물명사)-(에게)는 N1-이 (N2에게 + E) V
- = b. N0-가 N1(때문에 + -에 대해서) (N2-에게 + E) V

또는

- a. N0(= 제약인물명사)-(에게)는 N1-이 (N2에게 + E) Adj
- ≠ b. *N0-가 N1(때문에 + -에 대해서) (N2-에게 + E) Adj
- ≡ c. N0-가 N1(때문에 + -에 대해서 + -을) (N2-에게 + E) V(= Adj-어 하다)³⁾

다음이 위의 정의에 입각한 한국어 심리동사의 예이다.

- (2) a. 나에게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 = b. 나는 내 아들(에 대해서 + 때문에) 자랑스럽다
- ≡ c. 나는 내 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 (3) a. 나에게는 그 일이 약오른다
- = b. 나는 그 일 때문에 약오른다

- (4) a. 나에게는 철수가 싫다
- ≠ b. *나는 철수 때문에 싫다
- ≡ c. 나는 철수를 싫어한다

3. 기존 한·불 사전 심리동사 항목 기술의 문제점 검토

3 이 정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새 한·불 사전에 등재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한국어 심리동사 리스트는 논문 후반부에 별첨을 하였다.

3.1. 표제어 선정

기존의 한·불사전의 표제어 목록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은 이미 누차 지적된 바 있다. 심리동사들에 대한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도 다시금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다. 직관적으로 한국어 기본어휘로 판단되는 심리동사 ‘고통스럽다’, ‘짜증스럽다’ 등과 같은 어휘가 누락되어 있고 ‘짜장’, ‘남유다르다’와 같은 표준어가 아닌 방언의 끌어거나 평균적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어휘가 다수 등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새 한·불 사전 개편을 위한 현재의 체재 및 인적구성을 고려해 보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새 한·불사전의 표제어를 포함한 한국어 부분의 기술은 서울대 국문과 소속의 연구원을 포함한 다수의 한국어 전공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2. 역어의 오류

기존의 한·불사전의 심리동사 표제어들을 보면 불역이 잘못된 것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덤덤하다’는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1) 특별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무관심한 듯하다 2) 특별하지 않고 예사롭다 3) 음식의 맛이 싱겁다. 별나지 않다 정도로 나와 있다. 또 다른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덤덤하다’에 대한 기존 한·불사전의 불어 대역어는 ‘rester sans rien dire(=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rester silencieux(se)(= 조용히 있다); garder le silence(= 침묵을 지키고 있다)’로 나와 있다. 이 뜻풀이는 연세한국어사전의 1), 2)의 뜻풀이에 상응하는 뜻풀이라고 여겨지는데, 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바른 뜻풀이가 아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존의 한·불사전의 ‘덤덤하다’의 항목에는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 3)에 해당되는 용법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한·불 사전에는 이런 오류가 없어야 하겠다. 시안으로 새 한·불사전의 ‘덤덤하다’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 덤덤하다 ① avoir l'air indifférent; être calm; ne pas être excité; être sans émotion ② [음식의 맛이] être fade, insipide.

3.3. 뜻풀이의 오류

기존의 한·불사전의 심리동사 표제어들을 보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뜻풀이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표제어 ‘아니꼽다’의 경우 그 첫 번째 뜻풀이가 “(냄새가) 고약하다”이다. 이는 우리의 직관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최근에 간행된 어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뜻풀이이다.

3.4. 다의어의 구분

심리동사의 용법을 지니고 있는 표제어들은 다수가 심리동사로서 서로 전환관계에 있는 두 구문을 지니고 각 구문에 따라, 관련은 있지만 구별되는 두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 두 의미는 불어로 대역될 때 종종 다른 두 어휘로 대응된다. 예를 들어 ‘부끄럽다’는 “부끄러움을 느끼다”의 뜻과 “부끄러움을 유발하다”의 두 뜻이 있고 불어로는 전자의 의미가 ‘avoir honte’, 후자는 ‘être honteux’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두 의미는 국어 어휘부의 내적 논리에 의해서도 다의어의 처리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질뿐더러 목표 언어를 고려해야하는 이개어 사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아도 반드시 다의어로 처리하여 그 의미의 구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하겠다. 또한 심리동사의 용법을 지니고 있는 표제어들은 심리동사로서의 용법만 갖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다른 용법으로도 아울러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럽다’는 심리동사의 용법 외에 육체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또 ‘슬프다’는 심리동사의 용법뿐 아니라 주어 명사의 객관적인 특질을 나타내는 일항 서술어로도 쓰인다. 또 ‘수줍다’ ‘자신만만하다’ 등의 형용사는 심리동사의 용법뿐 아니라 심리적 상태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태도나 모습을 나타내는 용법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런 용법의 분화는 항목 구성 및 불어의 대역 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하겠다. 그럼 심리동사 부류의 표제어들이 보이는 용법의 분화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지 그 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a. 심리동사의 두 용법의 명시적인 구분

대부분의 한국어 심리동사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심리경험주를 주어로 하는 구문과 심리경험주의 심리경험, 즉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그 감정의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 또는 명사 상당어귀를 주어자리에 위치시키는

구문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 (6) a. 영미의 죽음이 나에게서 슬프다
- b. 나는 영미의 죽음 때문에 슬프다

- (7) a. 나에게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내심 찼다
- b. 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내심 찼다

위의 (6), (7)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심리동사는 심리경험주를 주어로 하는 구문(= (6b), (7b))과 심리경험주의 심리경험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그 경험의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귀를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는 구문(= (6a), (7a))을 둘 다 가질 수 있다. 이 두 용법은 다의어로 구별하고 명시적으로 구분되게 기술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한·불 사전을 보면,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심리동사 ‘기쁘다’는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구문을 동시에 갖는다.

- (8) a. 내가 그 소식을 듣고서 아주 기쁘다
- b. 그 소식을 나에게서 아주 기쁘다

그렇지만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한·불사전의 ‘기쁘다’ 항목은 이 두 용법의 구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 (9) 기쁘다 être joyeux(se), heureux(se); être content(e), satisfait(e).

예문 (9)에서 être joyeux(se)는 심리경험주의 심리경험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그 경험의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귀를 주어자리에 위치시키는 구문에는 쓰이지만 심리경험주를 주어로 하는 구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반대로 être content(e), satisfait(e)는 심리경험주를 주어로 하는 구문에는 쓰이지만 심리경험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그 경험의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귀를 주어자리에 위치시키는 구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être heureux(se)는 이 양 구문에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하겠다.

(10) 기쁘다 ① (사람이 ...한 감정을 느끼다) être content(e), satisfait(e), heureux(se) ② (...이 ...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être joyeux(se), heureux(se)

또 용법의 구분을 위해서 사용되는 괄호 안의 메타언어도 수정을 요한다. 기존의 한·불 사전을 보면 심리동사의 상기 두 용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리경험주를 주어로 하는 용법의 경우는 '(사람이)'라는 메타언어를 주고, 심리경험주의 심리경험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그 경험의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귀를 주어자리에 위치시키는 용법의 경우는 '(사물이)'라는 메타언어를 주고 있다. 아래의 '아니꼽다'의 항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1) 아니꼽다 ① (사물이) <odeur> être désagréable, nauséabond(e), répugnant(e) ¶ 아니꼬운 냄새 odeur nauséabonde ② (사람이) avoir la nausée; être dégoûté(e). ¶ 「나는」 그 냄새를 맡으니 ~ Cette odeur me donne la nausée. 그의 위선이 「내게는」 ~ Son hypocrisie me dégoûte. 「나는」 ~ J'en ai la nausée.

그러나 이런 식의 메타언어는 혼동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니꼽다'의 경우는 바로 심리경험주의 심리경험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그 경험의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귀가 바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그 사람이 나에게는 아주 아니꼽다

(12)의 예문은 (11)의 아니꼽다의 ①의 용법에 해당하는 예문이지만 기존의 한·불 사전의 메타언어로는 이 예문을 ②의 용법과 잘못 연결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타언어를 바꿔야 하겠다. 예를 들어, (11)의 괄호 안의 메타언어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13) 아니꼽다 ① (...이 ...감정을 느끼게 한다) <odeur> être désagréable,

nauséabond(e), répugnant(e) ¶ 아니꼬운 냄새 odeur nauséabonde ② (사람이감정을 느끼다) avoir la nausée; être dégoûté(e).

또 (11)의 기존 한·불 사전의 ‘아니꼽다’의 항목을 여전히 보면 ② 용법의 두 번째 예문은 실제로 ①의 용법의 예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예문은 ①의 용법 바로 뒤로 위치를 바꿔야 한다. 기존 한·불 사전을 예문 배열을 보면, 이와 같이 예문과 용법의 연결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또 ‘아무’와 같은 표제어 항목을 보면, 각 용법 뒤에 해당 예문을 위치시키지 않고 아예 모두 예문을 맨 뒤에 몰아서 위치시키고 있다. 새 한·불 사전에서는 일관성 있게 각 용법의 바로 뒤에 해당 예문을 위치시키는 것을 통일해야 하겠다.

b. 심리동사의 용법과 통각동사(verbe sensationnel)의 용법과의 구분

또 몇몇 심리동사는 심리경험, 즉 감정을 나타내는 심리동사로서의 용법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적인 느낌, 즉 통각을 표현하는 용법을 아울러 같은 경우가 있다. 형용사 ‘답답하다’의 바로 그 예이다. ‘답답하다’는 우선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동사로서 구별되는 두 용법을 지니고 있다.

- (14) a. 내가 철수 때문에 아주 답답하다
- b. 철수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나에게서 아주 답답하다

그렇지만 ‘답답하다’는 다음과 같은 통각을 나타내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용법을 지니고 있다.

- (15) 아까 점심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됐는지 내가 속이 답답하다

그러므로 ‘답답하다’는 심리동사로서의 두 용법과 통각동사로서의 또 다른 용법이 명시적으로 구별되게 기술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한·불사전의 ‘답답하다’ 항목을 보면 전혀 이런 구별이 없다. 기존 한·불사전의 ‘답답하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16) **답답하다** ① [날씨가] être étouffant(e), suffocant(e), caniculaire. ¶ 이 방은 더워서 ~ Il fait une chaleur étouffante, (suffocante) dans cette pièce. ② [지루해서] être ennuyeux(se), assomant(e), fastidieux(se), insipide, lassant(e), soporifique, embêtant(e). ¶ 보기에 답답한 영화 film embêtant (insipide). 나는 시간이 안 가서 ~ Le temps me paraît long.

.....

(16)의 ‘답답하다’의 항목을 보면 우선 통각동사로서의 용법이 빠져 있다. 그리고 심리동사로서의 용법을 기술한 ②의 용법은 대역어를 보면 심리동사로서의 두 용법 중 하나만 기술되어 있고 예문에서는 두 용법이 다 나와 있다. 또 ①의 용법은 기술 자체가 정확치 않다. ①의 용법은 ‘답답하다’가 날씨를 주어로 하고 ‘숨이 막힌다’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답답하다’는 다음의 (17)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용법이 없다.

(17) *?요사이의 날씨는 아주 답답하다 (= 요사이의 날씨는 호흡이 곤란하게 만든다)

아울러 ①의 용법에 해당된다고 나온 예문은 전혀 이 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예문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복원하면 ‘나’이기 때문이다. 이 예문은 바로 통각형용사로서의 ‘답답하다’의 용법에 대한 예문이다. 그러므로 ‘답답하다’의 이 세 용법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하겠다.

(18) **답답하다** ① [호흡이 곤란하거나, 소화가 안 되어 불편함을 느끼다] avoir de la difficulté à respirer, se sentir suffoqué(e); être mal à l’aise à cause de l’indigestion. ¶ 이 방은 더워서 ~ A cause de la chaleur de cette pièce, je me sens suffoqué(e). ¶ 소화가 안 돼서 내가 속이 ~ Je suis mal à l’aise à cause de l’indigestion. ② [지루함을 불러일으키다; ...이 ...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être ennuyeux(se), assomant(e), fastidieux(se), insipide, lassant(e), soporifique, embêtant(e). ¶ 보기에 답답한 영화 film embêtant (insipide). ③ [지루함을 느끼다; 사람이한 감정을 느끼다] être ennuyé(e) ¶ 나는 시간이 안 가서 ~ Le temps me

paraît passer très lentement et je suis ennuyé(e).

c. 심리동사의 용법과 물리동사(verbe physique)⁴의 용법의 구분

표제어 ‘거북하다’의 경우는 심리동사로서의 용법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갖고 있다.

(19) a. 철수가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북하다 + 거북한 마음이 든다)

b. 그 이후로 철수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서 아주 (거북하다 + 마음 거북하다)

그러나 이 ‘거북하다’는 “물리적인 불편함을 야기하다” 또는 “물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다”의 뜻을 지닐 수 있다.

(20) a. 다리를 다쳐서 나는 걷기가 아주 거북했다

b. 다리를 다치면 걷기가 거북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거북하다’는 통각형용사의 용법 또한 갖고 있다.

(21) 내가 속이 아주 거북하다

그러나 기존의 한·불 사전의 ‘거북하다’의 항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인 불편함”(= (19))과 “물리적인 불편함”(= (20)) 그리고 “통각적인 불편함”(= (21))의 구별이 없다.

(22) 거북하다 ① être (se sentir mal à l’aise); être embarrassé(e), gêné(e).

② être embarrassant(e), gênant(e); gêner

그러므로 이 ‘거북하다’의 항목은 이런 용법의 분화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물리동사라는 명칭은 Ruwet(1972)에서 그 명칭을 빌려온 것이다.

(23) **거북하다** ① (속이 불편하다) avoir la nausée, être mal à l'aise à cause de l'indigestion. ¶ 내가 속이 ~ J'ai la nausée/Je suis mal à l'aise à cause de l'indigestion. ②-1 (물리적인 불편함을 야기하다) être gênant(e); gêner ¶ 다리를 다쳐서, 걷는 것이 ~ A cause de la blessure aux jambes, il me gêne de marcher ②-2 (물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다) 다리를 다쳐서, 나는 걷기에 ~ A cause de la blessure aux jambes, je suis gêné(e) pour marcher. ③-1 (심리적인 불편함을 야기하다) être embarrassant(e), gênant(e); gêner ¶ 막스가 나에게 ~ La présence de Max m'est embarrassante ③-2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다) 철수가 있어서, 내가 ~ A cause de la présence de Max, je suis mal à l'aise; La présence de Max me rend mal à l'aise. 그와 같이 있으면, 나는 ~ Je me sens gêné devant lui.

이밖에 ‘거추장스럽다’, ‘거북상스럽다’, ‘성가시다’, ‘불편하다’ 등의 표제어들도 ‘거북하다’처럼 심리동사의 용법과 물리동사의 용법의 구분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d. 심리동사의 용법과 객관동사(verbe objectif)의 용법의 구분

예를 들어, 표제어 ‘남부끄럽다’의 경우는 (24)에서 보는 것처럼, 심리동사로서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들게 한다” 또는 “남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다”의 뜻의 두 용법뿐만 아니라 (25)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부정의 형태로만 쓰이고 부정의 표현과 합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이른다”는 뜻의 객관적 평가를 함의하는 동사 (= 객관동사)의 용법이 구별된다.

- (24) a. 그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아주 남부끄러웠다
 b.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서 아주 남부끄러웠다

(25) 그는 남부끄럽지 않게 잘 산다

(24), (25)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남부끄럽다’와 객관동사로 쓰인 ‘남부끄럽다’는 의미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논항 구조나 분포, 부정제약(restriction de négation)에서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그렇지만 기존의 한·불 사전의 이 ‘남부끄럽다’의 항목을 보면,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동사의 용법과 객관동사의 용법에 각각 해당되는 예문들은 등재되어 있으나 이 두 용법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다.

(26) 남부끄럽다 avoir honte de qc; rougir de qc; être honteux(se); être déshonorant(e). ¶남부끄럽지 않은 생활 vie décente. 남부끄럽지 않은 생활 ne pas avoir à rougir de qc. 남부끄럽지 않게 차리다 s’habiller décemment(convenablement). 그런 짓을 하고도 남부끄럽지 않느냐? N’avez-vous pas honte de ce que vous avez fait?

그러므로 이 두 용법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그 항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심리동사 용법 내의 두 용법의 구분 역시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27) 남부끄럽다 ① (남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다) avoir honte de qc; rougir de qc ¶ 그런 짓을 하고도 남부끄럽지 않느냐? N’avez vous pas honte de ce que vous avez fait? ②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들게 한다) être honteux(se) ¶ 그 일이 나에게는 ~ Pour moi, le fait est honteux. ③ (항상 부정의 표현과 함께 쓰여,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이르다) être décent(e) ¶ 남부끄럽지 않은 생활 vie décente

e. 심리동사의 용법과 심리태도동사(verbe d’attitude psychologique)의 용법의 구분

심리동사 중 ‘수줍다’나 ‘자신만만하다’와 같은 동사는 여타 심리동사와는 달리 심리동사의 용법 외에 심리적 상태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서술하는 용법(이를 심리태도 용법, 이런 용법을 지닌 동사를 심리태도 동사라고 부르겠다)을 둘 다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동사에 ‘-어하다’를 붙이면 규칙적으로 심리태도 동사가 파생된다. 예를 들어, (28)의 예문의 ‘당혹스럽다’는 심리동사이고 (29)의 예문의 ‘당혹스러워하다’는 심리

태도 동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줍다’나 ‘자신만만하다’와 같이 예외적으로 이 두 용법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다.

(28)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아주 당혹스러웠다

(29) 내가 찾아가자, 그는 아주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나 기존의 한·불 사전은 이 역시 명시적으로 용법을 분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줍다’는 다음과 같이 항목이 구성되어야 하겠다.

(30) 수줍다 ① (수줍은 모습을 보인다) avoir l'air timide, être timide ¶ 그 어린이들이 내 앞에서 아주 수줍었다. Les enfants ont eu l'air très timide avec moi. ② (수줍음을 느끼다) éprouver de la timidité, être timide ¶나는 그 말을 하면서 아주 수줍었다. J'ai éprouvé tellement de timidité en parlant.

3.4. 연어 표현의 기술

a. 섬섬한 느낌, 슬픈 표정 등의 처리

심리동사의 기술에 있어서 서술적 용법(emploi attributif)으로는 쓰이지 않고 관형적 용법(emploi éphitète)으로만 쓰이는 경우는 체계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예외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일일이 기술해 주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섬섬한 느낌’이나 ‘슬픈 표정’과 같은 용법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들은 “느낌이 섬섬하다” 나 “표정이 슬프다”가 불가능한 관형적 용법의 연어이다. 이런 유의 연어 표현은 심리동사에 넓게 분포하는 표현이므로 ‘느낌’이나 ‘표정’의 명사 표제어 항목에서 이를 기술해 주는 것이 적절하겠

b. 수줍은 미소 등의 처리

반대로 ‘수줍은 미소’의 경우는 이 역시 “미소가 수줍다”가 불가능한 관형적 용법의 연어이다. 그렇지만 이 연어 표현은 한정된 수의 심리동사에

만 분포하는 표현이므로 ‘수줍다’ 항목에서 이를 기술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술의 방식으로는 예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31) ¶아가씨는 나에게 수줍은 미소를 던졌다. La jeune fille m'adressa un sourire timide.

3.5. 다른 통사적 특성의 기술

a. -게도 형의 문장부사어

‘기쁘게도 레아가 떠났다’의 예문의 -게도 형의 문부사어 용법의 체계적인 기술이 각 심리동사 항목에는 들어가야 하겠다. 대부분의 심리동사는 이런 문부사어의 용법을 갖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불어표현은 모두 한국어처럼 동사가 아닌 부사이다.

(32) ¶ 기쁘게도, 레아가 떠났다. Heureusement, Léa est partie.

b. 기타 구문적 특성의 기술

이밖에 심리동사가 지니는 부수적인 통사적 특성 중에서 심리동사만이 지니는 특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가능한 빠짐없이 그 정보가 등재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몇몇 심리동사는 감탄문을 보어로 취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33) ¶ 막스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놀라왔다. Max a chanté tellement bien que j'ai été surpris

4. 결론

새 한·불 사전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불어학습사전의 기능과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학습사전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어휘, 통사적 정보가 기존의 한·불 사전보다

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술의 원칙이 철저하게 언어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불사전의 「동사항목」 중에서 소위 말하는 심리동사에 대한 항목 구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또 발전적인 형태의 새로운 항목 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보았다. 모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새 한·불 사전편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이상 구체적인 항목 기술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와 발전적 방향의 모색이 학계 내에서 나오기를 기대한다.

별첨자료1: 새 한·불 사전에 등재될 만한 한국어 심리동사 목록

겸연쩍다	계면쩍다	낮뜨겁다	망신스럽다	멋쩍다
무안스럽다	무안하다	민망스럽다	민망하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속스럽다	자랑스럽다	창피스럽다	치욕스럽다
창피하다	감사하다	고깝다	고맙다	노엽다
떨떠름하다	떨다	못마땅하다	미안하다	분하다
불만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불만족하다	불쾌하다	서운하다
송구스럽다	송구하다	아니꼽다	아니꼽살스럽다	야속하다
언짢다	역정스럽다	원망스럽다	유감스럽다	죄송스럽다
죄송하다	죄스럽다	가깝하다	감격스럽다	갑갑하다
거북살스럽다	거북스럽다	거북하다	거북상스럽다	거추장스럽다
거처장스럽다	걱정스럽다	고달프다	고통스럽다	곤혹스럽다
괴롭다	공허하다	권태롭다	귀찮다	근심스럽다

기막히다	기쁘다	깨름직하다	난감하다	난처하다
남부끄럽다	답답하다	당혹스럽다	당혹하다	답답하다
덤덤하다	두렵다	뒤숭숭하다	든든하다	따분하다
뜨끔하다	막막하다	막연하다	만족스럽다	만족하다
매스껍다	매속매속하다	메스껍다	메속메속하다	가슴몽클하다
부담스럽다	비통하다	뼈아프다	뿌듯하다	상쾌하다
서글프다	서럽다	섬뜩하다	섬짓하다	성가시다
슬프다	시원스럽다	섭하다	시원하다	심란하다
심심하다	싱송송하다	쓰리다	쓰라리다	쑥쓰레하다
쑤스름하다	쑤쓸하다	쑤쓸하다	아찔하다	애통하다
어리둥절하다	어리벙벙하다	어색하다	어질어질하다	억울하다
얼떨떨하다	역겹다	염려스럽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원통하다	유쾌하다	자신만만하다	조마조마하다	좋다
지겹다	즐겁다	지긋지긋하다	지루하다	짐짐하다
짜릿하다	점점하다	짱하다	착잡하다	참담하다
치욕스럽다	감감하다	통쾌하다	피곤하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허전하다	허탈하다	허하다	혼란스럽다
흘가분하다	황당하다	후련하다	후회스럽다	호뭇하다
흡족하다	흥겹다	쾌심하다	그럽다	기겁다
반갑다	부럽다	밋다	싫다	아쉽다
절실하다	탐탁스럽다	가소롭다	귀엽다	기특하다
견연쩍어하다	계면쩍어하다	낮뜨거워하다	망신스러워하다	멋쩍어하다
무안스러워하다	무안해하다	민망스러워하다	민망해하다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하다	쑤스러워하다	자랑스러워하다	창피스러워하다	치욕스러워하다
창피해하다	감사해하다	고까워하다	고마워하다	노여워하다
떨떠름해하다	못마땅해하다	미안해하다	불만스러워하다	불쾌해하다
서운해하다	송구스러워하다	아니꼬워하다	언짱아하다	윈망스러워하다
죄송해하다	죄스러워하다	가깝해하다	갑갑해하다	거북스러워하다
거북해하다	거추장스러워하다	거치장스러워하다	걱정스러워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근혹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귀찮아하다	근심스러워하다	기뻐하다
깨름직해하다	난감해하다	난처해하다	남부끄러워하다	답답해하다
당혹스러워하다	당혹해하다	답답해하다	덤덤해하다	두려워하다

만족스러워하다	만족해하다	매스꺼워하다	부담스러워하다	뿌듯해하다
서러워하다	슬퍼하다	심란해하다	안타까와하다	좋아하다
지겨워하다	즐거워하다	지루해하다	짐짐해하다	피곤해하다
허전해하다	허탈해하다	혼란스러워하다	홀가분해하다	황당해하다
후련해하다	후회스러워하다	흐뭇해하다	흡족하다	홍겹다
괘씸해하다	그리워하다	기꺼워하다	반가워하다	부러워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아쉬워하다	탐탁스러워하다	가소로워하다
귀여워하다	아쉬워하다	약오르다	화나다	

참고문헌

- 김근택, 황경자. 1997. 「사전 용례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제 34집, pp. 703-722.
- 김세중. 1989. 「심리형용사의 몇 가지 문제」. 『어학연구』 제 25집, 1호. pp. 151-165.
- 김종명. 1999. 「어휘문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심리형용사 구문」. 『불어불문학연구』 제 38집, pp. 397-412.
- 김홍수. 1988. 「한국어 심리동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만규. 1997. 「동사 '나다'의 한불사전 기술시론」. 『불어불문학연구』 제 34집, pp. 547-570.
- 박만규, 임준서. 1997. 「새한불사전의 「동사항목」 구성」. 『불어불문학연구』 제 31집, pp. 691-710.
- 박성숙. 1997. 「한불사전에서의 언어 처리」. 『불어불문학연구』 제 34집, pp. 571-588.
- 서정철, 전성기. 1997. 「한불사전을 위한 자료 분석 -「사평역」의 한불번역 대조분석」. 『불어불문학연구』 제 34집, pp. 677-702.
- 정지영, 홍재성. 1997. 「새 한·불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불어불문학연구』 제 34집, pp. 677-702.
- 황경자. 1996. 「이개어사전과 외국어 교육」. 『불어불문학연구』 제 32집, pp. 941-964.

- Anscombre, J.-C. 1995. 「Morphologie et représentation événementielle : le cas des noms de sentiment et d'attitude」. 『Langue française』, vol. 105, février, pp. 40-54.
- Grevisse, M. 1964. 『Le bon usage』, 8ème édition. Gembloux: Duculot.
- Gross, M. 1975. 『Méthode en syntax』. Paris: Hermann, 414 p.
- Kim, J. M. 1998. 『Lexique-Grammair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du coréen』.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 Nanni, D. 1978. 『The easy classe of adjectives in English』. PH.D Thesis, Amherst, Massachusetts.
- Picabia, L. 1978. 『L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du français』. Genève: Droz, 198 p.
- Rochette, A. 1988. 『Semantic and syntactic aspects of romance sentential complementation』. PH.D Thesis, MIT.
- Ruwet, N. 1972. 『Théorie syntaxique et syntax du français』. Edition du Seuil.

Un Essai pour construire la microstructure des entrées verbales dans le Nouveau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 pour le cas des verbes psychologiques en coréen

CHUNG Ji-Young

Cette étude a, comme objectif, de proposer une façon plus satisfaisante de construire la microstructure des verbes appelés psychologiques dans le Nouveau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Pour ce faire, nous avons montré quelques problèmes portant sur la microstructure des verbes psychologiques qui se trouvent dans l'actuel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et ensuite nous avons proposé nos solutions pour régler les problèmes. Les problèmes que nous y avons relevés concernent surtout la subdivision d'une entrée en emplois. Selon nos jugements, c'est à cause de la manque de rigidité dans l'application des critères linguistiques que l'actuel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dénotent des défaillances de ce côté-là. En effet, nous avons démontré qu'il est nécessaire de distinguer les deux emplois de verbe psychologique de façon nettement plus formelle, d'une part et d'autre part, de différencier les emplois de verbe psychologique par rapport aux emplois de verbes physique, sensationnel, objectif et d'attitude psychologique. Enfin, nous avons mentionné quelques faits syntaxiques absents dans l'actuel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mais méritant leur présence dans celui de nouveau : l'emplois éphitètes non prédictibles et l'existence des constructions caractérisant de verbes psychologiques.